

#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 전공  
조교수 한유미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손경화

Dept. of Child Studies in Hoseo Univ.

Assistant Professor : Han, You-Me

Dept. of Child Studies in Kyung Hee Univ.

Student in Doctoral Program : Shon, Kyeng-Hwa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subject were 145 children(three to six-year-olds) and the instruments wer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by Eisenberg(1992) and Temperament Rating Scale by Chun(1992).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in general, used more positive reactions than negative reactions when their children showed negative emotions. Mothers' education, job, family type and income affected mothers' type of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reaction emotions were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temperament but not with their children's age, sex and birth order.

**주제어(Key Words):**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s), 어머니의 반응(mothers' reaction), 기질(temperament)

Corresponding Author: Shon Kyeng-Hwa, Child Development Laboratory, Kyung Hee University, Heo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130-701 Tel:82-2-961-9186, E-mail:vivid814@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유아는 사회화를 통해 특정한 양식의 정서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정서표출 규칙을 학습한다. 유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는 유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일차적인 사회화 대향자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의 표현은 장려하고 부정적 정서는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조절을 지도한다(유안진·이지선, 1999; Denham, 1997).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방법은 양육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ottman, Katz, & Hooven, 1996)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Cassidy, Parke, Bukowsky, & Braungart, 1992; 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Garner, Jones & Miner, 1994), 이는 부모가 자녀의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슬픔, 두려움,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한편 부정적 정서는 본질상 회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과 같은 부정적 통제전략으로 자녀에게 반응하곤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우울할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Dix, Reinhold, 그리고 Zambarano(199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기분 좋을 때보다 화났을 때 자녀에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Denham 1997; Denham &

Grout, 1992; Kliewer, Fearnow, & Miller, 1996)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덜 유능한 자녀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Eisenberg 등(1992)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최소화 반응이나 처벌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은 교사가 측정한 자녀의 인기도나 사회적 기술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ck(1984) 역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전략을 사용하면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이들의 부정적 정서의 발생과 불안의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였다(Gross & Levenson, 1993). 이밖에도 부모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된다(Cole, Michel, & Teti 1994; Dix, 1991, 1992).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이 다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Cassidy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2).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지적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덜 당황하고 부모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며 자신의 정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처리하는 전략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Fabes et al., 2001). 더욱이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부모의 능력은(예,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 행동을 결정하며,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해야 할 정서와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정서에 대한 표현방식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은 그 중요성을 갖는다(Parke, 1994).

이와 같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인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양식을 통해

자녀의 정서의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Cassidy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2). 그러나 자녀의 기질 특성과 부모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가 있다는 입장(Sameroff, 1975)에서 몇몇 연구자들(Bell, 1977; Keller & Bell, 1979; Lytton, 1990)은 유아의 기질 특성이 다르면 부모의 행동도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적 성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yrios & Prior(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상 사용 빈도와 자녀의 기질의 규칙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Eisenberg & Fabes(1994)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기질상 주의집중을 못하고 정서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일수록 최소화 반응 및 처벌 반응을 사용하며, 자녀가 기질상 주의집중을 잘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일수록 감정표현의 격려와 문제중심의 사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머니 반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거나 어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강희연, 1997; 김희정, 1994; 박미정, 2001) 유아의 기질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6세 자녀가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양방적 관계라는 입장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과 유아의 기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1.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유아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은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은 유아의 기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경남지역의 유치원을 통해 만 3세에서 만 6세 사이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03년 1월 6일에서 1월 18일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159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부실기재와 무응답을 제외한 145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만 3세~6세의 유아를 가진 어머니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가 대체로 아동의 기질이 안정적인 유형을 보이는 시기로 만 3~6세 아동의 어머니에게 적합하며,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유형 또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 2. 측정도구

#### 1)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희정(199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Eisenberg, Fabes와 Bernzweig(1990)가 제작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전체 72개 문항이 6개 반응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 반응유형은 각각 12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하위 6개 반응유형은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인 반응, 감정 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 문제중심의 사회화 반응, 최소화 반응 등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5)

변수	구분	빈도 (N)	백분율 (%)
아동의 성별	남	81	55.9
	여	64	44.1
아동의 연령	만 3세(35-47개월)	13	9.0
	만 4세(48-59개월)	19	13.1
	만 5세(60-71개월)	27	18.6
	만5세이상(72-84개월)	86	59.3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93	64.1
	둘째	43	29.7
	셋째 이하	9	6.2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49	36.3
	전문대졸	25	18.5
	대졸	54	40.0
	대학원이상	7	5.2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80	59.3
	전문대졸	17	12.6
	대졸	32	23.7
	대학원이상	6	4.4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66	49.6
	비취업	67	50.4
가족형태	핵가족	112	81.2
	시댁식구와의 대가족	18	13.0
	친정식구와의 대가족	8	5.8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	25	19.8
	200-300만원 미만	42	33.3
	300-400만원미만	32	25.4
	400-500만원 미만	16	12.7
	500만원이상	11	8.7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 유형이며, '처벌적인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벌을 주는 반응 형태를 말한다. '감정표현의 격려'는 유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 주는 반응 형태이다. '최소화 반응'은 부모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어주는 반응 유형을 말한다. 또한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은 부모가 아동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반응 유형이며, '문제중심의 사회화 반응'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원

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반응 유형이다. 본 척도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데 6개의 반응 전체 문항의 총점은 12점에서 60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점수가 가지는 반응유형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문항에 따라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내적합치도로 구한 신뢰도는 유형별로 .64에서 .82 사이에 분포하였다.

##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용 기질 평정척도(천희영, 1993)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기질 평정척도는 학령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는 어머니 질문지인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와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에서 발췌된 것으로 만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유아 기질에 대한 하위 5개 영역은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처음의 반응 이후의 적응 정도이며,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과 같은 활동이 활발한 정도를 말한다. '규칙성'은 잠자기, 먹기, 배설 등의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며, '반응성'은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서성은 어떠한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 상태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하위 5개 영역은 33개 문항으로 어머니가 평소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문항 분석 및 척도의 하위 영역간 상관을 분석하여 내용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구성타당도를 입증한 바 있다. 천희영(1992)이 보고한 본 척도의 문항변별력은 .25이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로 구한 신뢰도는 기질의 구성 차원에 따라 .83에서 .64까지 분포되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한 만 3-6세 유아를 둔 어머니 275명을 대상으로 2002년 12월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의표집하였다. 이중 무응답이 많거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45부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원장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아동의 부모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다음주에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14일의 기간을 둔 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공변량분석(ANCOVA),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의 일반적 경향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인 반응, 최소화 반응, 감정 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 문제중심의 사회화 반응 등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은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M=3.64 SD=.56)과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M=3.60 SD=.50)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최소화 반응(M=3.11 SD=.48)과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M=3.02 SD=.53)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스트레스 반응(M=2.45 SD=.41)과 처벌적인 반응(M=2.41 SD=.47)이 가장 낮은 점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들은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인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 유형보다 긍정적인 반응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

<표 3>과 같이 아동의 월령을 공변인으로 한 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반응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 유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어떠한 유형의 어머니의 반응유형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일부 어머니의 반응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과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어머니의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족의 수입은 어머니의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 및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과 차이가 있었고, 가족 형태는 어머니의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 및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 그리고 최소화 반응과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일수록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F= 8.87, p<.001), 비취업모(M= 3.57)보다 취업모(M= 3.73)가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F= 4.02, p<.01). 연구대상 가족의 수입을 상

<표 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45)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인 반응	최소화 반응	감정 표현의 격려	정서 중심의 사회화	문제중심의 사회화
M(SD)	2.45(.41)	2.41(.47)	3.11(.48)	3.02(.53)	3.64(.56)	3.60(.50)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공변량 분석

(N=145)

		스트레스 반응		차별적 반응		최소화 반응		감정 표현 격려 반응		정서 중심 사회화 반응		문제 중심 사회화 반응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유아 연령	5세미만(59)	2.42(.43)	.45	2.37(.58)	.79	3.12(.52)	.06	3.03(.55)	.16	3.71(.60)	1.66	3.62(.49)	.26
	5세이상(86)	2.48(.39)		2.44(.41)		3.10(.45)		3.00(.51)		3.59(.54)		3.58(.50)	
유아 성별	남아(81)	2.44(.38)	.10	2.37(.44)	1.32	3.06(.43)	1.83	2.99(.52)	.59	3.59(.56)	1.64	3.57(.49)	.46
	여아(64)	2.47(.44)		2.46(.50)		3.17(.53)		3.05(.53)		3.70(.57)		3.63(.51)	
유아 순위	첫째(93)	2.45(.41)	.00	2.34(.49)	.41	3.13(.47)	.60	3.03(.50)	.49	3.66(.55)	.13	3.62(.48)	.59
	둘째이하(52)	2.45(.40)		2.45(.43)		3.06(.49)		3.00(.57)		3.61(.59)		3.55(.52)	
모 학력	고졸이하(80)	2.81(.40)	8.87***	2.40(.44)	.27	3.09(.47)	.67	3.03(.54)	.16	3.61(.60)	.49	3.62(.54)	.30
	전문대졸(17)	2.43(.41)		2.46(.69)		3.03(.55)		2.95(.44)		3.59(.49)		3.52(.30)	
	대졸이상(38)	2.34(.33)		2.37(.44)		3.18(.45)		3.02(.60)		3.75(.53)		3.62(.45)	
모 직업	취업모(66)	2.42(.38)	1.72	2.45(.51)	1.09	3.15(.40)	.78	3.07(.47)	2.08	3.73(.53)	4.02*	3.66(.39)	2.39
	비취업모(67)	2.50(.43)		2.35(.42)		3.08(.52)		2.94(.57)		3.57(.57)		3.54(.52)	
가족 수입	저(25)	2.55(.35)	.72	2.45(.42)	.13	3.01(.46)	.24	2.88(.52)	1.68	3.33(.61)	8.20**	3.39(.59)	4.29*
	중(74)	2.48(.39)		2.42(.52)		3.14(.50)		3.01(.52)		3.67(.49)		3.61(.44)	
	고(27)	2.41(.50)		2.37(.42)		3.15(.43)		3.15(.51)		3.92(.53)		3.78(.46)	
가족 형태	핵가족(112)	2.47(.40)	.75	2.42(.48)	.12	3.06(.46)	5.74*	3.00(.54)	.71	3.57(.57)	8.52**	3.55(.51)	5.99*
	대가족(26)	2.39(.41)		2.36(.43)		3.30(.45)		3.10(.50)		3.94(.46)		3.81(.36)	

\*p&lt;.05 \*\*p&lt;.01 \*\*\*p&lt;.001

위 25%, 하위 25%, 그리고 중간 50%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들은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 $F = 8.20, p < .001$ )과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 $F = 4.29, p < .01$ )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형태별로는 대가족보다 핵가족 어머니들이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 $F = 8.52, p < .001$ )과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 $F = 5.99, p < .01$ ) 그리고 최소화 반응( $F = 5.74, p < .01$ )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과 유아의 기질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아동의 월령을 통제한 후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 유형간의 부분 상관관계를 산출하였

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나타내는 반응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와 같이 부분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반응유형의 일부 차원들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나타난 아동의 기질은 적응성, 규칙성, 반응성 이었으며, 어머니의 반응 유형은 스트레스 반응, 차별적인 반응,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기질 중 적응성 차원은 어머니의 반응 양식 중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 $r = .17, p < .05$ )과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 $r = .28, p < .05$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적응성이 높은 기질을 가졌을수록 어머니는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과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 기질의 규칙성 차원은 어머니의 차별적 반응 유형과 부정적인 상관관계( $r = -.17, p < .05$ )가 있는 것

<표 4> 자녀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간의 부분상관관계

(N=145)

어머니의 반응양식	유아 기질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스트레스 반응	-.06	.05	-.15	-.17*	.14
처벌적 반응	-.10	.07	-.17*	-.08	.04
최소화 반응	.02	.09	.04	.03	.03
감정표현 격려 반응	.10	.02	.11	.06	-.03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17*	.07	.14	.17*	-.07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28*	-.02	.19*	.18*	-.09

\*p<.05

으로 발견되었다. 즉, 아동의 생리적 규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처벌적인 반응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 기질의 반응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양식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 $r = -.17, p < .05$ )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정서 중심 사회화 반응( $r = .17, p < .05$ )과 문제 중심 사회화 반응과는 정적 상관관계( $r = .18, p < .05$ )가 있었다. 즉, 아동의 반응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사용하며,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가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았으며, 어머니의 반응 양식과 유아의 기질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유형보다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등 긍정적 반응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반응유형 6가지 중 정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 중심의 사회화 반응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최소화 반응과 감정 표현의 격려 반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인 반응이 가장 적었다. 이는 유아

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을 살펴본 강희연(1997), 박미정(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정서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주는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Eisenberg와 Fabes(1994)의 연구에서는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 스트레스 반응,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어머니와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유사한 반응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최소화 반응을 다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어머니의 반응 유형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보고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므로 실제 어머니의 행동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응 양식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어떠한 유형과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반응이 차이가 없이 나타난 것은 어머니들의 남녀평등 의식의 증가와 소자녀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들이 남아에게 스트레스 반응이

나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등 부정적 반응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 박미정(2001)의 연구나 어머니들이 남아에게 더 엄한 체벌과 엄격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 이현순(1982)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정확히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반응 양식이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이 일반적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집단과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포함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을, 취업모일수록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을, 수입이 많을수록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과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통제적이고 처벌적인 반응을 사용한다는 Schaefer와 Baley(1967)의 연구나 계층이 높을수록 처벌적인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보인다는 Garner, Jones와 Miner (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가족보다 대가족 형태의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낼 때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최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가족 하에서 어머니들이 조부모 세대의 존재로 인해 자녀에게 스트레스나 처벌 등과 같은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정서중심의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중심의 사회화 반응과 같은 이성적인 대처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부모 세대의 존재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정적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어 주는 최소화 반응을 유도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출생 순위 등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학력이나 취업 상태, 소득 등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반응유형의 일부 차원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기질의 적응성은 어머니의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및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규칙성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반응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과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가 적응성, 반응성, 규칙성 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등 긍정적 반응 유형을 사용하는 반면, 자녀가 반응성이나 규칙성 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 반응 등의 부정적 반응 유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부모의 거절, 인내심 부족, 비승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 태도는 아동의 기질 변화와 관계가 깊고, 문제 행동과 상관이 있다는 Bates(1989)의 연구나 Eisenberg와 Fabes(199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이 주의집중을 못하고 정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는 어머니들일수록 최소화 반응 및 처벌 반응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 양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인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 유형보다 긍정적인 반응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나 취업 유무, 가족 소득, 가족 유형 등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은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는 자녀의 기질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어



머니들은 유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 태도 및 정서적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자녀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평가자의 편견 개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실제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아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 대처 반응, 태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지 못했다. 주로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수가 145명으로 설문조사 인원수로 불충분할 뿐 아니라 표집과정에서 5세 이상의 아동들이 5세 미만의 아동보다 많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대상의 수를 늘리고 적절한 표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서의 사회화 및 이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의 개념을 소개하고 특히 기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강희연(1998).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정(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이지선(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tes, J. E. (1989). Concepts of measures of temperament. In G.A. Kohnstamm, J. E. Bates & M.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 NY: Academic Press.
- Bell, R. (1977). Socialization findings reexamined. In R. Bell & R. Harper(Eds.), *Child effects on adults*, Hillsdale, NJ: Erlbaum.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73-100.
- Denham, S. A. (1997). "When I have a bad dream, Mommy holds me": preschooler's conceptions of emotions,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301-319.
-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 75-101.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ix, T. (1992). Parenting on behalf of the child: Empathic goals in the regulation of responsive parenting.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Vol. 2, 319-346). Hillsdale, NJ: Erlbaum.
- Dix, T., Reinhold, D. P., Zambarano, R. J. (1990). Mothers' Judgements in moments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 456-48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 Psychology*, 27, 448-455
- Gottman, J., Katz, L., & Hooven, C. (1996).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Mahwah, NJ: Erlbaum.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pp.57-73), San Francisco: Jossey-Bass.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available from the authors.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Martí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3, 907-920.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 Educational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ross,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Keller, B. B., & Bell, R. Q. (1979). Child effects on adults' method of eliciting altruistic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1004-1009.
- Kliewer, W., Fearnow, M. D., & Miller, P. (1996). Coping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Tests of maternal and patern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67, 2339-2357.
- Kyrios, M., & Prior, M. (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ral adjustment of 3-5-year-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 67-93
-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Sameroff, A. (1975). Early influence on development: Fact or 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21, 263-294

(2003년 10월 30일 접수, 2003년 12월 11일 채택)